**원생 늪**

원생 늪은 운젠 지옥 온천 바로 서쪽에 위치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1928년) 이 늪은 일본의 가장 희귀한 풍경 중 하나로, 생물의 다양성이 주목받고 있는 곳이며, 생태학적 천이를 볼 수 있는 훌륭한 일례입니다.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원생 늪은 과거 운젠에서 유명한 ‘지옥 온천’의 황량한 풍경과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면서 온천은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했고, 이 움직임으로 늪지 아래 부분이 식으면서 1500년 전에는 거의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던 곳에 생태계가 활발하게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개선되면서 먼저 물이끼가 순식간에 한쪽 면을 뒤덮었습니다. 현재는 꽃을 피우는 진달래부터 식충식물인 끈끈이주걱과 제비붓꽃까지 다양한 식물이 늪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안타깝게도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 100년 후에는 현재의 경관과는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